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고양시의회

- 고양시의회 의원 싱가포르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기 간 : 2012. 11. 5(월) ~ 11. 9(금)

■ 장 소 : 싱가포르



고양시의회

〈 목 차 〉

I. 연 수 개 요	1
II. 연 수 주 요 일 정	2
III. 싱 가 포 르 국 가 현 황	3
IV. 방 문 기 관 별 연 구 내 용	4
V. 시 사 점 및 발 굴 내 용	15
VI . 연 수 후 기 및 소 감	18

- 고양시의회 의원 싱가포르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 개요

1. 연수기간 : 2012. 11. 5(월) ~ 11. 9(금) 【3박 5일】

2. 연수국가 : 싱가포르(Singapore)

3. 연수목적

- 싱가포르 주요 시설 견학과 문화탐방을 통해 국제적 시각을 제고 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 해외의 우수한 사회제도,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생활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경험으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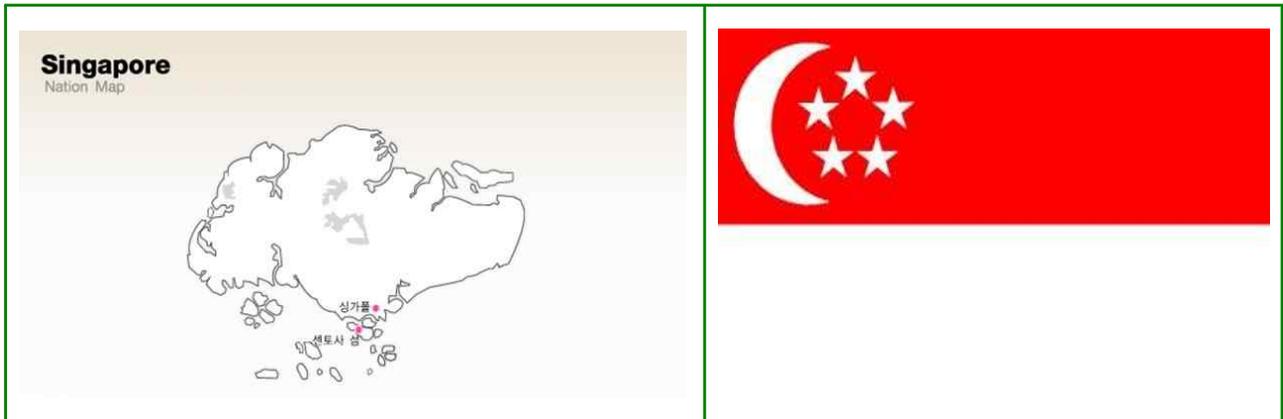
4. 참가인원 : 11명(의원 8명, 전문위원 1명, 직원 2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고양시의회	부의장	선 재 길	남	단 장
2	“	의 원	장 제 환	남	
3	“	의 원	선 주 만	남	
4	“	의 원	우 영 택	남	
5	“	의 원	이 윤 승	여	
6	“	의 원	권 순 영	여	
7	“	의 원	고 은 정	여	
8	“	의 원	왕 성 욱	여	
9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조 병 근	남	
10	“	직 원	윤 병 철	남	
11	“	직 원	박 선 희	여	

II

연수 주요 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세 부 일 정	비 고
11/05 (월)	인 천 싱가포르	OZ751	14:00 16:20 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3층 L카운터앞집결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호텔 투숙 및 자유 시간 <p style="text-align: center;">HTL: OASIA HOTEL SINGAPORE OR SML</p>	
11/06 (화)	싱가포르		08:00 전일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공공시설 관리운영실태 연수 ○ 친환경 도심개발지역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 및 교통 등 전반적인 도시관리 실태 답사 ○ 저녁 후 호텔 투숙 <p style="text-align: center;">HTL: OASIA HOTEL SINGAPORE OR SML</p>	
11/07 (수)	싱가포르		08:00 전일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 싱가포르 장애인협회(HWA)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장애인협회와 정보교류 및 관심사항 논의 ○ 싱가포르 양로시설협회(HNF)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료서비스 현황 및 시설견학 ○ 호텔 투숙 및 자유 시간 <p style="text-align: center;">HTL:OASIA HOTEL SINGAPORE OR SML</p>	
11/08 (목)	싱가포르	OZ752	08:00 10:00 18:00 20:00 2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 주요 선진시설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라이언 파크, 센토사섬 등 ○ 석식 ○ 공항 이동 ○ 수속 후 싱가포르 이륙 	
11/09 (금)	인천		06:05	○ 인천공항 도착 후 고양시로 이동 해산	



'그린 & 크린 시티'로 불리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포르는 14세기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사자의 도시)'라는 뜻으로 불리다가 영국인들이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32년에는 영국의 해협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후 영국 식민지로 환원되었던 싱가포르는 1959년 영국 연방 내 자치 정부를 설립했으며, 1963년에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하게 되었다. 1965년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 공화국을 설립하였으며, 117번째로 유엔에 가입하게 된다.

자연적인 농업. 광물자원은 거의 없으나 19세기부터 행해진 동양과 서양의 중계무역으로 번성해졌으며 자유무역항으로서의 특별한 기능 때문에 근대적 창고업. 은행. 보험. 해운 등이 발전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인 구 : 약 304만명(4,560/km²)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 연평균 26.6℃
- 면 적 : 646.1km²(서울시 605.4km²)
- 주요민족 : 중국계(Chinese, 77.5%), 말레이계(Malay, 14.2%), 인도계(Indian, 7.1%), 기타(1.2%)
- 주요언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종교 : 불교·도교(53.3%), 회교(15.3%), 기독교(12.7%), 힌두교(3.7%)
- 시 차 : 한국과 1시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6시=싱가포르5시)

IV 방문기관별 연구내용

1. 도시재개발청(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방문일시 : 2012. 11. 6(화) 10:00~12:00
- 위 치 : ura centre 45 mxwell road, singapore 069118
- 홈페이지 : www.ura.gov.sg



● 기관현황

[URA]는 1974년에 설립된 도시 재개발청은 싱가포르 국가 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도시 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설계 조직이다. 싱가포르를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기에 훌륭한 도시로 만드는 것 Make Singapore a great city to live, work and play’을 사명으로 하는 이 조직은 싱가포르의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컨셉 플랜과 마스터 플랜 그리고 상세한 개발지침 계획을 수립하고 다운타운 마리나베이 프로젝트에서처럼 개발 공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URA Gallery]는 건물의 1층 로비와 2층 전시실에서는 URA의 모든 도시계획과 싱가포르의 그린정책에 대한 자료를 공개 전시되고 있다. 싱가포르 전체와 주요 도심지를 안내하는 엄청난 규모의 모형들과 개발 계획을 담은 도면, 보고서, 직접 발행한 책자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 방문내용

도시재개발청 건물의 1층 로비와 2층 전시실에서는 URA의 모든 활동이 일반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공개되어 있다. 싱가포르 전체와 주요 도심지를 안내하는 엄청난 규모의 모형들과 개발 계획을 담은 도면, 보고서, 직접 발행한 책자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다.

싱가포르의 전체 모형과 중심 업무 지역의 모형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시민들 누구나 이곳에 와서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의 앞날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관광책자에도 소개되어 관광객들과 외부에도 개방되어 있다.



싱가포르 전체를 축소한 도시 모형을 보며,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구조를 살피고 있음



싱가포르 도시계획의 콘셉트 플랜(Concept Plan)

아름다운 싱가포르를 가꾸기 위해 도시재개발확대, 도시미관, 문화유산발굴에 대한 향후 20년 후의 도시개발정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컨셉트(Concept) 플랜이라는 10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 시기에 맞추어 세부계획안을 5년에 한 번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이 싱가포르와 같이 뿌리 깊고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갖지 못한 이민자 중심의 사회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소속감을 고취하여 정치적 소요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다인종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싱가포르는 주택보유율이 90%에 달할 만큼 대부분의 가정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는 주택문제를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어 온 싱가포르 정부의 꾸준한 정책이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시재개발청(URA)에서 단체사진



URA 현황에 대한 설명

● 시사점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과 추진을 통해 깨끗한 도시, 녹색환경이 아름다운 도시, 삶의 질이 높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변모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사업을 우리시에 접목해볼 수 있다.

2. 싱가포르 장애인협회(HWA :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 방문일시 : 2012. 11. 7(수) 10:00~12:00
- 위치 : 16, whampo drive
singapore 327725
- 홈페이지 : www.hwa.org.sg



● 기관현황

싱가포르 장애인 협회(HWA)는 싱가포르 장애인들의 자립심 증진과 상호 보완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23명의 선진 그룹에 의해 1969년 설립되었으며, 심신장애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singapore friendship club으로 등록되었다가, 그 이름을 변경하였다. 각종 모임은 교회 도서관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연합회 관계자들은 각종 물품들을 기부하고 있다.

현재 1,8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육체적인 장애자들이 많다. 현재 연합회 직원은 42명으로 부대 시설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협회(HWA) 현황 브리핑 모습



장애인협회(HWA) 교육장

● 방문내용

싱가포르 장애인 협회 Subrata Banerjee 이사와 Simon Yeo 행정실 직원이 우리 의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협회교육장에서 Simon Yeo로부터 HWA 현황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 들었다. 싱가포르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없지만,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유형별로 독특하게 발전해 왔다고 한다. 설명 후 질의응답을 가졌다.

질의자	질 의	답 변
왕성욱 의원	▶ 싱가포르 장애인 협회는 1곳인가?	▶ 협회는 4개 존재하며 협회마다 기능이 다르다. HWA의 경우 신체장애인 보필 육성에 주목적이 있다.
	▶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순수 기부로 운영한다. 연간 30억 상당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정부지원은 일절 없다.
이윤승 의원	▶ HWA 버스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HWA내에 버스가 20대가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5달러(싱가포르)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버스 자체도 기부를 받고 있다.
권순영 의원	▶ 장애인들이 자동차 구입시 혜택은 있는지?	▶ 장애인은 1,600CC 이하 소형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단, 보험료는 더 비싸다. ▶ 회원 1,800명이나 일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신체불편, 교통수단이 문제이다.
장재환 의원	▶ 취업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 엑셀, 회계, 리셉션리스트(안내도우미), 텔레마케터, 캐드 등에 대해 취업교육을 한다.

질의자	질 의	답 변
고은정의원	▶ 기부는 주로 누구에게 받는지와 기부 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 개인, 회사, 자선이벤트 등을 통해서 기 부받고 있다.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 여 세제혜택이 있다.
	▶ 운영주체는?	▶ 종교랑 상관이 없으며 순수 독립적인 단 체이다.
	▶ 싱가포르 내에 장애인 숫자는?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싱가포르 총 인구 중 30%가 신체장애자로 추정된다. HWA 등록 장애인 수는 1,800명이다.
	▶ 신체장애인 일자리는?	▶ 교육 훈련을 통해 IT분야 등에 진출한다. 싱가포르 장애인 역시 취업하기 어려우며, 한국과 달리 의무취업규정은 없다.

통역을 도와주는 분과 직원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봤다. 처음 안내를 받아 방문한 공간은 물리 치료실이다. 물리치료실은 평범한 공간으로 그리 시설이 훌륭하다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장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엑셀, 회계, 리셉션리스트(안내도우미), 텔레마케터, 카드 등 장애인들이 배우고 취업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취업하기는 힘들다고 하나 싱가포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한다.

Subrata Banerjee 이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민간장애인복지기관들이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싱가포르지역 모금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사회 보장제도인 중앙적금 기금(CPF)은 개인의 미래는 가급적 개인이 책임진다는 원칙에 입각한 공동주택 구입, 의료비지원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독특한 사회 보장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Subrata Banerjee 이사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순수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협회(HWA) 재활치료실



Simon Yeo 행정실 직원의 이동버스 구조 설명

● 시사점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평생순환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생활보장과 복지시설 규모를 확장해가고 있다.

3. 싱가포르 양로시설협회(HNF : Home Nursing Foundation)

- 방문일시 : 2012. 11. 7(수) 14:00~16:00
- 위 치 : 93 Toa Payoh Central,
Toa Payoh Central Community Building
- 홈페이지 : www.hnf.org.sg



● 기관현황

HNF는 전 건강부 부수상에 의해 1976년 10월에 싱가포르내에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설립된 자선, 비영리기구이다.

환자의 일인당 월소득을 기준으로 요금을 제공하고 있어, 기타 사립기관보다 훨씬 저렴하며 일부 HNF 환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현재 HNF는 싱가포르 토파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2개의 양로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 사회복지협회와 공영 자선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본인의 연금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돌봐주고 있다



Dan Lian Eng 간호실장 브리핑



양로시설협회(HNF) 시설 둘러봄

● 방문내용

Dr Yim Sau Kit CEO와 Ms Dan Lian Eng 간호실장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Dan Lian Eng 간호실장으로부터 HNF 현황과 운영방식에 대해 들었다. 현재 남자 65명 여자 55명 총 12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환자 자부담과 기부금을 받아 운영한다. 간호사와 보조인력 등 20여 명이 수용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한다.

환자증상에 따라 자부담은 달라진다고 한다. 상주 의사는 없으며 1주일에 한 번 의사가 와서 환자를 본다. 다인종 국가인 싱가포르 특성상 종교가 같은 환자들이 함께 있으며, HNF의 경우 회교도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가능한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노인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보호는 병들고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최후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한다.

싱가포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가 빠른 나라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은 '노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위원회, 정부부처, 노인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Dan Lian Eng 간호실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싱가포르 정부지원이 보다 늘어나야 된다고 보았다.



고양시의회 연수단 환자들과 담소



양로시설협회(HNF)에서 단체사진

● 시사 점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며, 의료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우리시에 접목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유럽식 복지정책대신, 자신의 가족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고양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친환경 도심개발지역 견학

○ 방문일시 : 2012. 11. 6(화) 14:00~18:00

● 도심 주요 현황

1998년 세계 최초로 ERP(전자식통행료징수) 도입으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했다고 한다. 또한 COE(차량등록 및 구입에 관한 입찰)제도 도입으로 차량증가 억제, 소음, 먼지공해 방지역할을 하였다고 하며, 현재 싱가포르의 차량 보유 대수는 상업용차, 오토바이 포함 약 90만 대 정도라 한다.

싱가포르는 도심 건물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업용 간판 설치를 금지시켰고, 1971년 기념물 보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짧은 역사를 가진 싱가포르의 고고학적, 건축학적, 미적 가치가 있는 건물 또는 싱가포르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관공서 상가건물을 지정 보존하는 모습이였다.

싱가포르 강에서 운행하는 유람선들은 전기를 이용한 동력으로 교체하여 매연, 소음 공해 방지 등 훌륭한 공공시설 관리 운영으로 싱가포르를 찾는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술 또한 정해진 곳에서만 판매하고, 유흥업소가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이다.

또한 천재지변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며, 산업 박람회 가장 많이 열리는 나라이다. 이번 싱가포르 답사에서는 그들의 짧은 역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그들의 노력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 벤치마킹 사례

	
<p>깨끗한 도로 풍경</p>	<p>입구에 넓은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햇빛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음</p>
	
<p>아름다운 조명 디자인</p>	<p>보행자 안전 매우 주의 표시</p>

● 시사 점

철저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짧은 역사의 도시이지만, 곁에 보이는 요란함 사치스러움이 아니라 실속 있고 내실 있는 나라로, 이런 모습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배울 점이 많다.

5. 주요 선진시설 견학

○ 방문일시 : 2012. 11. 8(목) 10:00~18:00

● 멀라이언 파크 : 상징화 사례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인 독특한 형태의 멀라이언(Merlion)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사자는 국명의 유래인 Singa를, 물고기는 항구도시를 의미한다고 한다. 멀라이언은 특별한 설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싱가포르에 어울리는 아이콘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972년에 만들었다고 한다.

Fullerton 호텔 앞 Anderson교 옆에 위치한 멀라이언 파크에는 8m 높이의 하얀 멀라이언상이 오늘도 물을 뿜어내고 있는데, 이곳은 언제나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우리도 풍부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머라이언 상



머라이언 타워 앞에서 단체사진

● 국립식물원 보타닉 가든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은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싱가포르 최대의 식물원으로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인들에게도 소풍이나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52헥타르의 공간에 50만 종의 식물들이 인공적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원시적인

정글 속에서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난 공원 봄여름 가을 겨울 4 계절의 테마로 구분되어 있으며 2천 종의 다양한 난을 관람할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 식물원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보타닉 가든 전경



보타닉 가든에서 단체사진

● 마리나베이 샌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시공 : 쌍용건설)라는 복합 리조트 빌딩은 설계 단계부터 한국은 물론 세계로부터 여러 면에서 주목과 논란을 끌었던 빌딩이다. 허공에 떠있는 우주선 같기도 하고, 우리 기업이 지은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컨벤션센터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설계되었고 호텔과 카지노, 복합쇼핑몰과의 시너지효과를 노린 전략은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우리 고양시가 벤치마킹할 점이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전경



마라니베이 샌즈 컨벤션센터 시찰

국가의 미래와 개발·발전을 위해 앞을 내다보며 불리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지속적인 집행으로 국가의 비전을 실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은 물론, 엄격한 제도 속의 불편함을 참아내며 준법 의무를 다하여 다인종 간의 조화를 훌륭하게 일궈 싱가포르만의 발전적인 다인종 문화를 만들어 낸 싱가포르인들의 의식을 교훈 삼아, 고양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행복 도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한 소감과 우수한 사례는 추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여 고양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며, 연수 결과 시사점 및 발굴내용 몇 가지를 간략히 작성한다.

1. 관광정책 분야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은 인력으로 만들어 낸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변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개발된 땅이 많으며, 관광상품 또한 리조트 시설과 골프장 등인 것인 반면, 싱가포르는 머라이언 파크, 센토사 섬, 보타닉 가든, 주룽 새 공원 그리고 고층빌딩 등 다양한 관광자원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하고 있다.

서울에 인접한 고양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싱가포르는 고양시가 가야 할 관광산업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회복지분야

국가의 공적인 지원은 최소화하고 노후연금, 의료비 보조, 주택자금 지원, 사망 시 부양가족 보호 등 종합복지 기능을 개인과 고용주가 분담하여 월급에서 강제저축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유럽식 복지정책 대신, 자신의 가족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사회보장 제도 CPF(Central Provident Fund)를 도입하고 있어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고양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도시환경분야

싱가포르가 주는 첫 번째 인상은 잘 정돈된 그리고 깨끗한 도시라는 점이다. 독립 초창기부터 도시계획에 따라 철저히 계획되어 전주가 없는 도시, 빌딩과 나무와 숲이 어울리는 환경은 전깃줄이 엉켜 있는 우리나라를 한참이나 앞선 것 같다. 강한 정부의 통제력이 싱가포르 성공적인 도시개발의 원동력이겠지만 국민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정책 또한 발전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고양시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뉴타운지구, 브로멕스 프로젝트 추진, 장항동 지식기반정보단지 조성, 덕은동 미디어밸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고양시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고양시가 한 폭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교통정책분야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 또한 볼 수가 없었으며 보행 중 흡연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보행자를 기다려 주는 자동차, 사람들도 느긋해 보인다. 잘사는 나라의 국민임에도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소박함에서 그들의 절제된 여유가 느껴진다.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나 도로에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싱가포르의 교통문화. 엄격하게 교통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차량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자동차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느는 등 자동차가 생활

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싱가포르의 엄격한 제도 시행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경제정책 분야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경제개발청을 설립하여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세제지원, 부지제공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경제개발청에 집중시키는 등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컨벤션시설 유치, 호텔산업 육성, 물류센터 건립 등 인근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적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고양시의 지역 특성과도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6. 싱가포르의 행정분야

싱가포르 고위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 공직자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 공무원 보수를 부패문제와 결부시키는 설명도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부패행위방지법과 부패행위조사국(CPIB)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높은 보수가 이러한 청렴성을 이끌어내게 하였다.



장애인협회(HWA) 관계자와 단체사진



아랍스트리트에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살핌

1. 선재길 부의장(연수단장)

싱가포르는 중계자유무역항으로서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에 점령되기도 하였으며 1961년에는 정치적 위기도 있었으나 정부와 국민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GNP 4만불 시대를 열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를 계획하여 만든 도시국가이다. 현재도 도시재개발청(URA)에서 보다 멋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싱가포르에 머무는 동안 교통체증이 없었으며 난폭운전자도 없었다.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모든 차량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어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거의 모든 도로에는 그림 같은 가로수가 잘 가꾸어져 있어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더 해 준다. 싱가포르의 도로 교통은 질서정연함 그 자체였다.

싱가포르의 건물은 웅장하면서도 미적 감각을 살린 고층 현대건물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오래된 건물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야간경치는 더욱 아름다웠다.

건물 중에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건설한 마리나베이샌즈 빌딩이 있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술을 선보이며, 52도 경사진 상태로 57층을 건설하였으며 3개의 빌딩 꼭대기를 이어지게 만든 하늘공원은 축구장 2개의 크기라 하며 배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한 것이 위용과 아름다움을 함께 지니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도심 곳곳에는 싱가포르에 왔었다는 증표를 남기기 위한 여행자들의 필수코스인 머라이언공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주룽새 공원, 식물자원의 보고 보타닉 식물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 싱가포르인들의 여유 있는 삶을 느낄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후적 이점 등 천혜의 이점이 있는 반면, 국토의 협소, 물 부족, 지

하자원이 전혀 없는 단점도 많은 나라임에도 장점을 잘 이용하여 오늘의 국부를 이룬 훌륭한 나라이며, 여러 민족이 함께 살면서도 수성리관유의 지도력과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오늘의 선진국을 만든 나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로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재개발,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와 싱가포르의 조건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싱가포르의 우수한 정책과 여러 장점을 우리 것으로 승화시켜 여러 발전의 초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믿음이다.

2. 장제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싱가포르는 4청(四淸)의 국가로 ‘물’, ‘도로’, ‘공기’, ‘정부’가 깨끗한 국가라고 한다. 좁은 국토 면적,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적은 인구, 섬나라 등 불리하다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풍기는 도시이다. 떨어진 휴지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리, 깨끗한 건물 그리고 화려함 대신 단순하면서도 미적감각이 넘치는 상가의 간판, 도시 전체의 색깔 또한 조경과 어울림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여유롭고 소박함이 느껴졌다. 특히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모습은 인상이 깊게 남는다.

국가개발을 위해 거의 독재나 다름없는 정치는 펼치는 정부 주도로 국가발전을 이루었지만,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잘 지키고 따랐던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신뢰가 높은 국가를 믿고 충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결과, 지금의 훌륭한 환경에서의 삶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듯하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하나로 융화되어 나오는 다양성과 일체감은 싱가포르가 더욱 다채롭고 신기한 곳이 될 수 있게 해준다. 궁금하기도 하다. 땅은 좁지만 넓은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클락 키(Clarke Quay)의 야경과 노천카페, 머라이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주룽 새 공원과 거리에서 부딪혔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의 모습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서울의 면적과 비슷한 도시국가이다. 고양 면적이 267.3 km² 정도이니까 고양시보다 약 378.8km² 정도가 넓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우리가 배울 점은 있다는 것이다. 옛말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좋고 우수한 것은 물론, 그렇지 못한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발전을 위한 배울 점이 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고 관광객들은 왜 싱가포르를 찾는지 그리고 외국 회사들은 왜 싱가포르에 투자를 하는가? 등 반면 인도네시아는 왜 발전이 더디고 국민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고민해 본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의 비전은 무엇이고 진행 경과와 문제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앞날을 위해서는 물론, 현재를 위해서도 다각적이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번 연수 또한 고양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향후 고양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은 원·내외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고양’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배움의 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배우고 익히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3. 이윤승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3박 5일은 짧은 일정이긴 하였지만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선진 도시

국가로 발돋움한 싱가포르의 그간의 성장 과정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고양의 미래상을 멀리 해외에서 스크린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

서울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는 싱가포르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을 몇 가지 들어보면, 정치제도의 끊임없는 자기쇄신, 강력한 반부패정책, 엘리트 위주의 인적자원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적극적인 개방 정책, 작은 도시에 우거진 숲 조성, 성공적인 수변 개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 등의 사례가 있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고양시는 살기가 좋은 곳이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된다. 연수기간 동안 낯선 환경에서 짜인 일정에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시대와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도 항상 복잡한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고 항상 개발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를 견학하며 보고 느꼈던 점은 분명 우리에게 보약과도 같이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비교시찰에 참여한 8명 의원 모두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고심할 것이며 또한 이번 시찰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 및 의정활동에 적극 적용하려 노력할 것이다.